



“XML에서 EAI 분야로 수익모델 다각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등 '공공분야' 에서 두각

XML 기반 e-비즈니스 토털 솔루션 업체인 씨오텍은 4년이란 짧은 시간에 'XML 전문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XML 전문기업으로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군을 공급한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능 중심의 단순 패키지 제품이 아닌 XML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보유, 문서입력기인 '에디터'에서부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솔루션까지 통합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G4C),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목받고 있는 '씨오텍'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김진경 기자

XML업체 난립과 저가입찰 등 과당경쟁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위축 상황에서도 올해 흑자를 기록하며 비즈니스를 전개한 씨오텍. 씨오텍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스템 제공을 위한 '컨설팅'은 물론 최적의 XML 제품 및 응용솔루션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의 주력제품인 '아르고 엑스스토어(ARGO XSTORE)'는 XML 데이터의 저작, 생성, 가공, 저장관리, 검색, 유통, 통합 및 연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평가다.

XML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씨오텍은 지난 XML 솔루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력'과 '컨설팅' 실력을 발휘했다. 전자 문서 유통 솔루션은 '서울시 사이버 민원안내시스템'과 '대법원 경매정보 시스템'에 구축됐다. G2C(정부와 개인), C2G(개인과 정부), B2B(기업과 기업)간에 XML을 이용해 자료의 전달을 자동화시키는 전자문서 유통 솔루션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XML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전자문서 전달체계를 빠르고 저렴하게 구축하는 솔루션이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체제로 변환해 운영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서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킨다. 또 문서거래 시간을 단축해주고 업무처리 오류 방지 등 효율적인 비용관리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먼닷컴'에 구축된 '웹 콘텐츠 관리 솔루션'은 인터넷 환경에서 고객의 업무 흐름에 따라 XML 콘텐츠를 생성하고 관리해 웹 페이지나 핸드폰 등 원하는 매체로 콘텐츠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기존 HTML 이용 업체가 이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 HTML로 콘텐츠를 변환시키는 프로세스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공자가 XML 콘텐츠를 생성·관리할 수 있어 비용 및 인적 자원 절감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 e-Book 인트라넷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 '온라인 백과사전'에 구축한 '전자도서관 솔루션'은 기존 편집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용 HTML 편집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AI로 확대되는 비즈니스 영역

씨오텍의 성장에 밑거름이 'XML'이었다면 제 2 도약기는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씨오텍은 미 EAI 솔루션 전문업체인 비트리아(Vitria Technology)와 지난 6월말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국내 EAI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안동수 사장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7월 초로 양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EAI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고 다행히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충실했던 결과인지 진출 초기부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내 제1일 금융권에서도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AI란 새로운 미들웨어를 이용해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기업내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과정을 뜻한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들웨어가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간의 통합과 그들 간의 비연속적인 트랜잭션을 용이하게 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반면, EAI는 기업이 여러 애플리케이션간의 관계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간을 이루는 트랜잭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EAI'는 말 그대로 기업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EAI의 기본 목적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업체나 동일하지만 실제로 E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접근 방법은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기반 기술, 그리고 접근 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EAI 솔루션 벤더들의 전략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도 핵심 요소와 컴포넌트는 같다.

EAI 솔루션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는 동기/비동기 메시징,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변환, 규칙 엔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부가 기능으로는 데이터 획득 및 전달 툴, 데이터 인증/통합 관리, 에러처리/재시도, 플랫폼 컨버전,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토콜 번역, 실시간 분석, 시스템 관리 등이 있다.

XML, EAI 그리고 B2B까지

씨오텍이 국내 공급하는 EAI 솔루션인 미 비트리아의 BusinessWare(BW)은 기업 내부의 이기종 시스템은 물론 기업과 기업간 e-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연동, 통합시켜주는 솔루션으로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기능 및 예외처리를 담당하는 워크플로우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EAI, 그리고 이를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간의 프로세스 통합으로 확대시킨 B2Bi(Business to Business Integration)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기업 내부 시스템의 통합은 물론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간의 프로세스 통합까지도 별도의 비용 없이 유연하게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다.

씨오텍은 비트리아의 BusinessWare의 국내 판매는 물론 비트리아가 제공하는 EAI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잠재 고객을 겨냥한 다양한 부가 솔루션의 개발/보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솔루션 개발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하나는 씨오텍이 공급해온 XML 관련 솔루션에 비트리아의 핵심 기술을 선택적으로 통합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공공시장' 과 더불어 금융, 통신, 제조, 유통 고객군 및 EDI 솔루션 시장분야에 적합한 맞춤 솔루션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며, 또 하나는 신규 사업 영역인 EAI, B2Bi 시장 접근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BusinessWare 제품과 연계 가능한 자사 기술 자원을 최적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

씨오텍은 이미 LG텔레콤에 BW를 공급해 내부 빌링시스템과 모바일 커머스 시스템간의 고객정보 및 결제정보를 통합했다. 향후 빌링시스템을 중심으로 타 내부 시스템, 모바일 커머스 비즈니스 통합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수 사장은 "최근 E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시일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CRM이 필수적인 금융, 유



Mini Interview | 씨오텍 안동수 사장 |

씨오텍, 기업용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신 중

▲ 씨오텍의 강점은 무엇인가.

- 향후 성장성이 높은 XML 분야에 특화돼 있고 다양한 제품군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등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국내외 영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2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수익구조도 뛰어나다.

▲ XML 시장에 대한 의견은.

- XML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의 턱오버가 필요한 시기이다. XML 시장이 현재 어려운 것은 인프라 기술에서 시장으로 발전해야 하는 캐즘을 극복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XML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IBM처럼 큰 업체였다면 'XML'에 대한 회의론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XML업체들이 지난해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마치 기술자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XML 자체가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

▲ 비트리아사와 제휴에 대해 평가한다면.

- 비트리아사는 탑코의 CTO와 CFO가 설립한 업체로 브랜드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기술력 만큼은 자타가 공

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위 업체와의 힘겨운 제휴보다는 기술력에서 탁월하지만 씨오텍을 배려할 수 있는 2위 업체를 선택한 것은 잘 한 것 같다. 비트리아사의 솔루션과 씨오텍의 컨설팅 능력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 기존 XML 분야는 강점을 살려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신규 진출한 EAI 분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푸시할 것이다. 금융, 유통, 제조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공공분야 위주의 XML 시장보다는 훨씬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2Bi와 웹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기업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것이다.


▲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1998년 창업한 씨오텍은 직원 90명의 규모로 성장했으며, 코스타에 등록해 XML 전문업체로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포스테이터 등 6년 간의 직장생활이 전부이기 때문에 CEO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두렵다.

통 분야를 타겟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EAI 분야 '리딩업체' 목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편의성' 때문이었다. 웹 서비스 또한 편의성 위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수 사장은 "XML 전문업체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리스크를 안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자주 선보여야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XML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민간 활성화는 더딘 반면, EAI는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 도입하는 등 확산 속도는 더 빠른 편이다. 홈쇼핑 등 유통분야와 현대자동차 등 제조분야에서 EAI 등에 강력한 투자 의지를 밝히며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AI는 공공시장보다 금융, 유통, 제조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씨오텍으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안 사장은 "2003년 EAI 분야에서 리딩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아르고 엑스스토어(ARGO XSTORE)' 시리즈

ARGO XSTORE 2.0은 XML 데이터의 생명주기인 정의, 생성, 관리, 배포에서 요구되는 제반 기능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단절없는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XML 통합 플랫폼으로 고객의 e-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 솔루션이다.

● **ARGO XDOC [아르고 엑스독] (XML/SGML 문서 저작 도구)**
초보자도 쉽게 유효한 XML/SGML 문서를 저작할 수 있도록 제반 기능 제공한다. 리파지토리(저장소)와 연계를 통한 대상 문서 Check In/Out 및 버전 관리를 지원한다. Guided Editing 기능 지원을 통한 정확하고 생산성 높은 구조화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 검증 및 오류 내역 제공을 통해 해당 문서 규칙에 적합한 문서 생성 보장. 사용자 직관적인 작업화면/ 규칙정보 탐색·검색 기능/ 부분 문서 편집 기능/ 프로젝트 단위 관리/ 한 부가 기능 제공/ 다국어 지원 / 스타일 적용 미리 보기 기능

● **ARGO XDTD [아르고 엑스디티디] (XML/SGML DTD 설계 도구)**
XML/SGML의 DTD(문서규칙 정의)를 편집할 수 있는 XML/SGML DTD 설계 도구로 자체 개발한 DTD 개발방법론(XMethod)과 연계해 체계적인 DTD 개발을 지원한다. 리파지토리와의 연계를 통한 대상 DTD Check In/Out 및 버전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자체 DTD 개발방법론 지원/ 기존 DTD 분석 편의 기능/ 표준 모델 구성 및 재활용/ 공유 Vocabulary 관리/ 사용자 직관적 작업 뷰/ 다국어 지원

● **ARGO XForm [아르고 엑스폼] (Form 기반 XML 정보획득을 위한 규칙 정의 도구)**

HTML Form과 DTD, DTD와 DTD간의 포괄적 변환 규칙 정의, XSLT 표준에 따른 변환 규칙, 입력 양식 자동 생성, 리파지토리와 연계를 통한 대상 서식 Check In/ Out.

웹디자인과 XML 맵핑 작업 분리/ XSLT 기반 XML 서식 편집/ 사용자 정의 함수 지원/ 실시간 테스트 기능 제공/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국어 지원

● **ARGO XTrans [아르고 엑스트랜스] (XML 문서 변환기)**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생성된 XML/SGML간의 변환은 물론 HWP, DOC 등 비구조화된 문서를 구조적인 XML 문서로 변환해주는 도구이다. 서로 다른 DTD를 가진 XML 문서간의 변환(Transformation)이 가능하다.

변환된 문서에 XSL을 바로 적용함으로써 브라우저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 다단계 변환 적용/ 다중 문서 동시 변환 가능/ 강력한 에러 체크 가능하다.